

[2010년 7월 3학년 모의고사 12번 문제]
726. <보기>를 바탕으로 주체 높임법을 탐구한 것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 기>

ㄱ. 선생님께서는 학교에 계신다.
 ㄱ'. *선생님은 지금 수업이 계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시다.
 ㄴ'. 작은아버지는 살림이 넉넉하다.
 ㄷ. 작은아버지께서는 지금 식사를 하신다.
 *'는 비문법적인 문장 표시임.

- ① ㄱ과 ㄱ'를 보면 '계시다'를 사용한 어휘적 높임은 주체를 직접 높일 때에만 실현되는군.
- ② ㄴ의 '넉넉하시다'를 통해 주체와 관련 있는 '살림'을 높임으로써 '작은아버지'를 존대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군.
- ③ ㄴ'는 주체인 '작은아버지'에 대한 높임의 태도가 나타나지 않았군.
- ④ ㄴ의 '넉넉하시다'와 ㄷ의 '하신다'가 직접적으로 높여주는 대상이 동일하군.
- ⑤ ㄴ과 ㄷ을 보면 경우에 따라 '께서'를 사용하지 않아도 대상에 대한 높임이 실현되는군.

[2004년 6월 2학년 학력평가 14번 문제]
727. 다음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언어 탐구 학습을 진행했다. [A]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장 면] 철수: "선생님, 순이 선배가 영희에게 책을 주었습니다."
 [탐구 과정]

문제 제기	국어의 '높임법'은 어떤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가?						
단계별 탐구	언어에는 기본적으로 말하는 이, 말을 듣는 이, 행동의 주체가 되는 인물, 행동의 대상이 되는 인물이 문장 내적인 요소로 등장한다. 여기에는 인물들의 연령, 지위, 서열 및 친소의 관계, 격식과 비격식의 장면 등 문장 외적인 요소도 있다. ↓						
	* 발화와 관련된 인물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말하는 이와 듣는 이</td> <td>행동 주체</td> <td>행동 대상</td> </tr> <tr> <td>철수 → 선생님</td> <td>순이</td> <td>영희</td> </tr> </table>	말하는 이와 듣는 이	행동 주체	행동 대상	철수 → 선생님	순이	영희
말하는 이와 듣는 이	행동 주체	행동 대상					
철수 → 선생님	순이	영희					
* '철수'가 사용한 높임법의 양상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text-align: center;">듣는 이</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동 주체</td> <td style="text-align: center;">행동 대상</td> </tr> <tr> <td>· 높임의 종결어미와 격식체의 사용: '- 습니다'</td> <td>· 듣는 이를 고려하여 행동 주체를 낮춤: '선배가'</td> <td>· 행동 대상을 낮춤: '에게'</td> </tr> </table>	듣는 이	행동 주체	행동 대상	· 높임의 종결어미와 격식체의 사용: '- 습니다'	· 듣는 이를 고려하여 행동 주체를 낮춤: '선배가'	· 행동 대상을 낮춤: '에게'
듣는 이	행동 주체	행동 대상					
· 높임의 종결어미와 격식체의 사용: '- 습니다'	· 듣는 이를 고려하여 행동 주체를 낮춤: '선배가'	· 행동 대상을 낮춤: '에게'					
결론 도출	국어에서 높임법에서 높임의 여부는 주로 [A] _____						

- ① 격식이나 비격식이나의 장면에서 따라 결정된다.
- ② 말하는 이와 듣는 이와 친소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 ③ 발화와 관련된 인물들 사이의 관계와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 ④ 발화와 관련된 인물들이 어떤 문장 성분의 위치에 놓이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 ⑤ 행동 주체와 대상과는 무관하게 말하는 이와 듣는 이의 관계에 따라 결정된다.

[2012년 6월 1학년 학력평가 7번 문제]
728. <보기 1>을 참고할 때, <보기 2>의 ㉠~㉣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보기 1>

높임 종류	높임 대상	높임 실현 방법
주체 높임	서술어의 주체	○ '께서', '-(으)시-' 등 ○ '편찮다', '잡수다' 등
객체 높임	서술어의 객체	○ '께' 등 ○ '여쭙다', '드리다', '뵙다' 등
상대 높임	화자의 말을 듣는 상대	○ 종결 어미

<보기 2>

[분석 문장] "어머니, 아버지께서 할아버지께 선물을 드리러 큰덕에 가시었어요."

높임 종류	주체 높임	객체 높임	상대 높임
높임 대상	㉠	㉡	어머니
높임 실현 방법	께서, -시-	께, 드리다	㉢

- | | | |
|--------|------|-----|
| ㉠ | ㉡ | ㉢ |
| ① 아버지 | 할아버지 | -요 |
| ② 아버지 | 할아버지 | 께 |
| ③ 할아버지 | 아버지 | -시- |
| ④ 할아버지 | 아버지 | -요 |
| ⑤ 할아버지 | 아버지 | 께 |

[2013년 3월 3학년 모의고사 A형 13번 문제]
729. <보기>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점원: 손님, 어떤 옷을 ㉠ 찾으십니까?
 손님: 셔츠를 좀 보려고요. ㉡ 저희 아버지께서 입으실 거거든요.
 점원: 이 셔츠는 어떠세요? 선물로 ㉢ 드리시면 무척 좋아하실 겁니다.
 손님: 저희 아버지는 ㉣ 어깨가 넓으신데 잘 맞을지 모르겠네요.
 점원: 그러시면 ㉤ 어르신을 모시고 한번 들러 주세요.

- ① ㉠: '-니까'라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말을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② ㉡: '저희'라는 자신을 낮추는 어휘를 사용하여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 '-시-'를 사용해서 선물을 주는 사람을, '드리다'를 사용해서 선물을 받는 사람을 동시에 높이고 있다.
- ④ ㉣: '아버지'가 높임의 대상이므로 그 신체의 일부가 주어로 올 때도 높임 표현을 쓰고 있다.
- ⑤ ㉤: 높임을 나타내는 특정한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의 의도를 표현하고 있다.

[2013년 6월 3학년 모의고사 A형 14번 문제]

730.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보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동생: 학교 다녀왔습니다.
 누나: ㉠ 이제 오는구나.
 동생: 누나밖에 없어? ㉡ 아버지 안 계신 거야?
 누나: 응. 너 저녁 안 먹었지? ㉢ 아버지께 전화 드리고 얼른 나가자.
 동생: 무슨 일인데?
 누나: ㉣ 아버지께서 너 데리고 식당으로 오라셨어. ㉤ 할머니 모시고 저녁 먹으러 가자고 그러시더라.

- ① ㉠은 '-는구나'를 사용하여 상대인 동생을 높이고 있다.
- ② ㉡은 '계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③ ㉢은 '께'를 사용하여 주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④ ㉣은 '께서'를 사용하여 객체인 '아버지'를 높이고 있다.
- ⑤ ㉤은 '모시다'를 사용하여 객체인 '할머니'를 높이고 있다.

[2014년 9월 3학년 모의고사 B형 13번 문제]

731.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영희: 경준아, 선생님께서 다음 국어 시간에 있을 모둠 과제 발표는 네가 주도해서 ㉠ 준비하시라고 하셔.
 경준: 시인 소개 모둠 과제 말이지?
 영희: 응.
 경준: 그런데 어떤 시인을 주제로 발표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서도 말씀 ㉡ 있으셨니?
 영희: 아니. 그건 시간이 날 때 네가 직접 선생님께 ㉢ 물어서 알아봐.
 경준: 아무래도 그래야겠어.
 영희: 그런데 선생님께서 저번 수업 시간에 김소월의 시가 ㉣ 자기의 애송시라고 ㉤ 말했잖아. 김소월은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인이기도 하니까 김소월의 시 세계를 주제로 하여 발표해 보는 건 어때?

- ① ㉠ : 주체가 '경준'이므로 '준비하라고'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② ㉡ : 주어가 '말씀'이므로 '있었니'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③ ㉢ : 뒷사람인 '선생님'께 묻는 것이므로 '여쭙서'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④ ㉣ : '선생님'을 높이는 것이므로 '당신'으로 바꿔 말해야 한다.
- ⑤ ㉤ : 주체가 '선생님'이므로 '말씀하셨잖아'로 바꿔 말해야 한다.

[2014학년도 수능 A형 15번 문제]

732. <보기>의 ㉠, ㉡이 모두 사용된 문장은?

<보기>

우리말에서는 일반적으로 선어말 어미나 종결 어미, 조사 등을 통해 높임을 표현하지만, 어휘를 통해 높임을 표현하는 경우도 있다. 높임 표현에 쓰이는 어휘들은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주체를 높이는 용언(예 계시다).....㉠
- 객체를 높이는 용언(예 드리다)
- 높여야 할 인물을 직접 높이는 명사(예 선생님)
- 높여야 할 인물과 관련된 것을 높이는 명사(예 진지).....㉡

- ① 나는 아직 그분의 성함을 기억하고 있다.
- ② 누나는 여쭙 것이 있다며 할머니 댁에 갔다.
- ③ 연세가 많으신 할머니께서는 흥시를 잘 잡수신다.
- ④ 우리는 부모님을 모시고 바닷가로 여행을 떠났다.
- ⑤ 어머니께서는 몹시 피곤하셨는지 거실에서 주무신다.

[2014년 11월 2학년 학력평가 A형 14번 문제]

733. 다음은 높임 표현과 관련된 '학습 활동'의 일부이다. 질문에 대한 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학습 활동

다음의 높임 표현에 대한 설명을 참고하여, 아래의 질문에 답해 보자.

우리말의 높임법은 높이는 대상에 따라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면 주체 높임, 청자를 높이면 상대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면 객체 높임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높임법은 조사, 특수 어휘, 선어말 어미, 종결 어미 등에 의해 실현됩니다.

질문: 제시된 문장에 실현된 높임 표현에 대해 탐구해 보자.

- ㉠ 아버지, 할머니께 선물 드리셨어요?
- ㉡ 어머니, 아버지께서 저녁을 드시러 나가셨습니다.
- ㉢ 삼촌, 어머니께서 아버지를 모시고 오라고 얘기하시는데요.

- ① ㉠에는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 ② ㉡에서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목적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이고 있다.
- ③ ㉠과 ㉡에서는 종결 어미를 사용하여 듣는 상대를 높이고 있다.
- ④ ㉠과 ㉡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조사가 있다.
- ⑤ ㉢과 ㉣에는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을 높일 때 사용하는 선어말 어미가 있다.

[2014년 10월 3학년 모의고사 A형 14번 문제]

734. '높임 표현'과 관련하여 <보기>의 ㉠~㉣에 대해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어머니: 진우야, 엄마 좀 도와줄래? (손에 든 짐을 보여 주며) 할머니 ㉠덥에 가져갈 건데 너무 무겁구나.
 진 우: ㉡잠시만요. (한 손에 짐을 들고, 다른 팔로 어머니의 팔 짱을 끼면서) 사모님, 같이 ㉢가실까요?
 어머니: (웃으며) 애도 참. 어서 가자. ㉣할머니께서 기다리실 거야.
 진 우: 할머니 덩까지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 ① ㉠은 '할머니'와 관련된 대상을 높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② ㉡에서는 보조사 '요'를 붙여 대화 상대방을 높인 표현이다.
- ③ ㉢은 주체 높임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어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④ ㉣은 주격 조사 '께서'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 ⑤ ㉤은 '모시다'라는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할머니'를 높인 표현이다.

[2015년 3월 2학년 학력평가 14번 문제]

735. <보기 1>을 바탕으로 <보기 2>에 쓰인 높임의 양상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보기 1>

국어의 높임법은 높임의 대상이 무엇이나에 따라 크게 셋으로 나뉜다. 주체 높임법에서는 문장의 주어가 가리키는 인물, 객체 높임법에서는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상대 높임법에서는 말을 듣는 상대, 즉 청자가 높임의 대상이 된다. 그런데 실제로는 대개 두세 가지의 높임법이 동시에 사용된다. 존대를 [+]로 비존대를 [-]로 나타낸다면, '철수야, 할아버지 오셨어.'와 같은 문장은 [주체 높임+], [상대 높임-]로 표시할 수 있다.

<보기 2>

영희가 할머니를 모시고 공원에 갔어요.

- ①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상대 높임+]
- ②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상대 높임-]
- ③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상대 높임-]
- ④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상대 높임+]
- ⑤ [주체 높임 +], [객체 높임-], [상대 높임-]

[2018년 6월 1학년 학력평가 15번 문제]

736. <보기>의 밑줄 친 부분에 해당하는 예로 적절한 것은?

<보기>

객체 높임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곧 객체에 대한 높임의 태도를 나타내는 표현이다. 객체 높임은 주로 '모시다, 여쭙다' 등 높임의 의미가 있는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되거나 부사격 조사 '께'를 통해 실현되기도 한다.

- ① 선생님께서는 덩에 계십니다.
- ② 형은 어머니께 그 책을 드렸다.

- ③ 할아버지께서는 눈이 밝으십니다.
- ④ 할머니, 아버지가 지금 막 도착했어요.
- ⑤ 윤우야, 선생님께서 빨리 교무실로 오라고 하셔.

[2015년 6월 2학년 학력평가 14번 문제]

737. <보기>의 [가]에 들어갈 문장으로 적절한 것은?

<보기>

선생님: 우리말의 높임 표현에는 다음과 같이 세 종류가 있습니다.

- 상대 높임법: 화자가 청자, 즉 상대를 높이거나 낮추는 방법(종결 어미에 의해 실현)
- 주체 높임법: 문장에서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조사, 선어말 어미,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
- 객체 높임법: 문장에서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객체를 높이는 방법(조사, 특수 어휘에 의해 실현)

그런데 실제 언어생활에서 '높임 표현'이 실현되는 양상은 복합적입니다.

예문을 볼까요? '영희야, 선생님께서 찾으셔.'는 상대는 낮추고 주체는 높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는 상대를 높이고 객체도 높여서 표현한 것입니다.

- ① 내일 우리 같이 밥 먹어요.
- ② 제가 할머니를 모시고 왔습니다.
- ③ 이 손수건 좀 할아버지께 갖다 드려.
- ④ 요즘 여러 가지 일로 많이 바쁘시죠?
- ⑤ 어머니께서 아버지의 바지를 만드셨어.

[2016년 7월 3학년 모의고사 13번 문제]

738. <보기>의 ㉠~㉣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보기>

높임법은 화자가 높이려는 대상이 누구인지에 따라 주체 높임법, 상대 높임법, 객체 높임법으로 구분된다. 주체 높임법은 주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주체를 높이는 것이며, 상대 높임법은 대화의 상대인 청자를 높이거나 낮추는 것이고, 객체 높임법은 문장의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인 객체를 높이는 것이다.

- ㉠ 할머니께서 책을 읽고 계신다.
- ㉡ 누나는 어머니께 모자를 선물로 드렸다.
- ㉢ 할아버지께서 월요일 오후에 병원에 가신다.
- ㉣ (선생님과의 대화 중) 선생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 ㉤ (아버지와와의 대화 중) 아버지, 저는 아버지를 예전부터 존경해 왔습니다.

- ① ㉠은 주체인 '할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계시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② ㉡은 객체인 '어머니'를 높이는 데에 '께'와 '드리다'를 사용하고 있다.
- ③ ㉢은 주체인 '할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께서'와 '-시-'를 사용하고 있다.
- ④ ㉣은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는 데에 '말씀'을 사용하고 있다.
- ⑤ ㉤은 상대인 '아버지'를 높이는 데에 '-습니다'를 사용하고 있다.

*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I like you.’를 번역할 때, 듣는 이가 친구라면 ‘난 널 좋아해.’라고 하겠지만, 할머니라면 ‘저는 할머니를 좋아해요.’라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말은 상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 때문이다.

‘높임 표현’이란 말하는 이가 어떤 대상을 높이거나 낮추는 정도를 구별하여 표현하는 방법을 말한다. 국어에서 높임 표현은 높임의 대상에 따라 주체 높임, 상대 높임, 객체 높임으로 나누어진다.

주체 높임은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주체 높임을 실현하기 위해 선어말 어미 ‘-(으)시-’를 사용하며, 주격 조사 ‘이/가’ 대신에 ‘께서’를 쓰기도 한다. 그 밖에 ‘계시다’, ‘주무시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사용하여 높임을 드러내기도 한다. 그리고 주체 높임에는 직접 높임과 간접 높임이 있다. 직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를 직접 높이는 것이고, ㉠ 간접 높임은 높임의 대상인 주체의 신체 일부, 소유물, 가족 등을 높임으로써 주체를 간접적으로 높이는 것이다.

상대 높임은 말하는 이가 듣는 이를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방법이다. 상대 높임은 주로 종결 표현을 통해 실현되는데, 아래와 같이 크게 격식체와 비격식체로 나뉜다.

격식체	하십시오체	예) 합니다, 합니까? 등
	하오체	예) 하오, 하오? 등
	하계체	예) 하네, 하는가? 등
	해라체	예) 한다, 하나? 등
비격식체	해요체	예) 해요, 해요? 등
	해체	예) 해, 해? 등

격식체는 격식을 차리는 자리나 공식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하며, 비격식체는 격식을 덜 차리는 자리나 사적인 상황에서 주로 사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같은 대상이라도 공식적인 자리인지 사적인 자리인지에 따라 높임 표현이 달리 실현되기도 한다.

객체 높임은 목적어나 부사어가 지시하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방법이다. 객체 높임은 ‘모시다’, ‘여쭙다’ 등과 같은 특수 어휘를 통해 실현되며, 부사격 조사 ‘에게’ 대신 ‘께’를 사용하기도 한다.

[2018년 9월 1학년 학력평가 11번 문제]

739. 다음 문장 중 ㉠의 예로 적절한 것은?

- ① 아버지께서 요리를 하셨다.
- ② 교수님께서서는 책이 많으시다.
- ③ 어머니께서 음악회에 가셨다.
- ④ 선생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르신다.
- ⑤ 할아버지께서는 마을 이장이 되셨다.

[2018년 9월 1학년 학력평가 12번 문제]

740.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의 ㉠~㉣를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기 >

(복도에서 친구와 만난 상황)

성호: 지수야, ㉠ 선생님께서 발표 자료 가져오라고 하셨어.
지수: 지금 바빠서 ㉡ 선생님께 자료 드리기가 어려운데, 네가 가져다 드리면 안 될까?

성호: ㉢ 네가 선생님을 직접 뵙고, 자료를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

지수: 알았어.

(교무실로 선생님을 찾아간 상황)

선생님: 지수야, 이번 수업 시간에 발표해야지? 발표 자료 가져왔니?

지수: 여기 있어요. ㉣ 열심히 준비했어요.

선생님: 그래, 준비한 대로 발표 잘 하렴.

(수업 중 발표 상황)

지수: ㉤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성호: 궁금한 점이 있는데, 질문해도 되겠습니까?

- ① ㉠: 조사 ‘께서’와 선어말 어미 ‘-시-’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② ㉡: 조사 ‘께’와 특수 어휘 ‘드리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객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③ ㉢: 특수 어휘 ‘뵙다’를 사용하여 서술의 주체인 선생님을 높이고 있군.
- ④ ㉣: 듣는 사람인 선생님을 높이기 위해 ‘준비했어요’라는 종결 표현을 사용하고 있군.
- ⑤ ㉤: 수업 중 발표하는 공식적인 상황이므로 ‘마치겠습니다’라고 격식체를 사용하고 있군.

[2017년 3월 1학년 학력평가 14번 문제]

741. ㉠~㉣ 중 <보기>의 ㉠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보기 >

높임 표현에는 말하는 이가 듣는 이에 대하여 높이거나 낮추어 말하는 상대 높임, 서술의 주체를 높이는 주체 높임, 목적어나 부사어가 나타내는 대상, 즉 서술의 객체를 높이는 ㉠ 객체 높임이 있다.

선생님: 지은아, 방학은 잘 보냈니?

지은: 네. 제 용돈으로 할머니께 ㉡ 드릴 선물을 사서 할머니 댁에 다녀왔어요.

선생님: 기특하다. 할머니를 ㉢ 뵙고 왔구나. 가서 무엇을 했니?

지은: 아버지께서 할머니를 ㉣ 모시고 병원에 가신 사이에 저는 ㉠ 큰아버지께 인사를 드리고 왔어요.

선생님: 저런, 할머니께서 ㉤ 편찮으셨나 보다.

- ① ㉠
- ② ㉡
- ③ ㉢
- ④ ㉣
- ⑤ ㉤